

한국포장기계대상 경영관리 부문 수상 혁신을 통한 경영실천



조명래
(주)우원기계 대표이사

한국포장기계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7회 한국포장기계 대상 심사 결과, (주)우원기계 조명래 대표이사가 경영관리 부문으로 수상자로 선정, 이번 달 12일 제8회 포장기계인의 날에 시상식을 갖는다.

(주)우원기계는 혁신을 통한 경영으로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해외수출시장 확대로 기업의 안전성, 활동성, 수익성을 지속 향상 시킴으로서 종업원당 매출액이 뛰어난 진공 유화기 전문 제조 업체이다.

지난 1984년 2월 우원기계제작소를 창업한 조명래 대표이사는 자본재산업 분야인 진공유화기를 비롯한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의 제조설비 중 필수적인 믹서기를 개발, 제조하여 국내 화장품업체와 의약품, 식품 등의 제조사에 공급해 왔다.

특히 대일수입에 의존한 국내 상황을 파악,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해외 수출에 주력해 왔다.

현재, 조명래 사장은 “혁신을 통한 경영”이라는 이념 아래, 우원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전임직원들에게 주체 의식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 아니라 윈-윈게임(win-win game)의 중요성을 피력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을 수 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우원기계는 현재 진공유화기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부품의 국산화와 협력업체의 기술지도 및 이전으로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엄격한

일본 화장품 업계에서도 기술력 인정 받아

성능시험으로 국내외 고객으로 신뢰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액체균질기용 임펠러, 균질기용 임펠러, 균질기 고점도 임펠러 등에 대한 특허와 실용신안을 등록시키는 등 제품 차별화에 노력하고 있다.

조명래 사장은 “현재 우원기계는 한국포장기계 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코리아팩(KOREA PACK)에 지속적으로 참가한 결과, 해외 Buyer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고 밝혔다.

또한 해외 유명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우원기계의 제품이 일본유명 메이커에 손색이 없음을 인정 받아 동남아 시장과 미주 시장은 물론 일본시장에 진출하여 일본 화장품 톱(Top) 메이커인 시세이도, 고세, 라이온, 일본유지, 도요에어졸 등 일본의 우수 기업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일본동종업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최근 2년간 일본, 미국 등에 53억 원의 수출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올해도 일본, 미국, 뉴질랜드, 중국 등지에 제품을 수출했으며 수주를 받아 진행 중이다.

또한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신제품 개발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gi homo Mixer, Ultra Mixer, Bottom Mixer, PIPE Line Mixer


등 설비를 국내외 기업체 및 학계에 무상 제공함으로써 업계나 유관단체의 시제품 생산과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윤의 일부를 장애인 재활성금으로 서울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성금을 기탁하여 장애인의 취업활동에 참여하는 등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고 있다.

자본재산업분야인 교반기 제조업을 시작으로 20여년 이상 우원의 발전을 이끌어 온 조명래 대표이사.

그는 평소 기술개발에 대한 집념으로 수입에 의존해 왔던 고속 진공유화기 등의 각종 믹서기를 자체개발 하여 오늘 수상의 결과를 낳았다.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미주등 세계 시장에 수출하여 우리나라 자본재산업의 수입을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조 사장은 앞으로도 부품의 국산화에 주력하는 한편, 협력업체의 기술지도를 통해 품질향상을 지속 실천할 계획이다.

올해 매출 목표는 6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우원기계, 좋은기계가 좋은제품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명래 사장과 우원기계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박초혜 기자